

삼성전자, 일본서 와이브로 시연!



삼성전자가 10월 29~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와이브로 월드 포럼'의 '와이브로 로드쇼' 행사에 참가해 와이브로 2 단말과 칩셋 등 앞선 와이브로 기술을 선보였다.

'와이브로 월드 포럼'은 정통부, 한국통신학회, ETRI 등이 주관하는 와이브로 관련 전문 행사로 특히 이번 행사는 일본 총무성의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최근 무선 통신 사업 참여 희망 기업에 대한 접수를 마감하고 연내에 모바일 와이맥스 사업자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WiBro 국제표준화 동향과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와이브로의 상용화 서비스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와이브로 장비 제조사 및

기업들의 일본 현지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를 앞두고 WiBro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3G 이동통신 국제표준으로 채택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600명 이상이 참가 신청했다.

이번 '와이브로 월드 포럼'에서는 한국통신학회 이병기 회장의 개회사, 일본 IICE(일본통신학회)의 스스무 요시다(Susumu Yoshida) 회장의 축사와 함께 스프린트 넥스텔 등 외국 기업, 삼성전자, KT, SKT, 포스데이타 등 한국 기업과 국내외 학계에서 WiBro 표준화 동향 관련 발표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LG전자 '에너지 솔루션'으로 에어컨 사업 키운다

LG전자가 에어컨사업을 기반으로 '에너지 솔루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 신성장 사업의 하나로 육성할 방침이다.

LG전자는 11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D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 한국마케팅부문장 박석원 부사장, 에어컨사업부장 노환용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솔루션'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2001년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



2004년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2006년 에너지 기본법 등 건물에너지 관련 규제 법규가 강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세계각국에서 건물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지열, 풍력, 태양열, 바이오 등 국내 신재생 에너지 시장규모는 올해 약 2천3백억원에서 2010년에는 4천2백억원, 그 이후에는 더욱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며, 글로벌 시장도 2010년 750억달러에서 2030년에는 2조 5천억 달러의 시장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LG전자는 지난 40년간 축적한 에어컨 공조기술 및 고효율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아프리카에 태권도를 심는다	2007/11/01
2	삼성·인텔·MS, 트로이카 솔루션@엔터프라이즈 발표	2007/10/31
3	삼성전자, 유럽에 G800등 전라폰 총출동	2007/10/30
4	삼성 프린터, 해외 B2B사업 대박 수주	2007/10/29
5	삼성전자, 국내 블루레이 시장 활성화 나서	2007/10/28
6	삼성전자, 중국 차세대 통신기술 선도	2007/10/23
7	삼성전자, 세계 최초 30나노 64기가 낸드 플래시 개발	2007/10/23
8	삼성전자, 10mm 超薄 40인치 TV용 LCD 첫 선	2007/10/22
9	삼성전자, 제2회 사랑의 청계천 걷기 행사 개최	2007/10/19
10	삼성전자, 프리미엄 노트북용 LCD 개발	2007/10/17

LG전자 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에너지 솔루션'으로 에어컨 사업 키운다	2007/11/01
2	LG전자, '샤이닝스톤 UP3' 출시	2007/10/31
3	LG전자, B2B특판사이트 오픈!	2007/10/31
4	LG전자, 'I Love브로드웨이' 캠페인 전개	2007/10/29
5	LG전자, 자연을 닮은 '샤인 우드' 출시	2007/10/29
6	LG전자, 인도네시아 최우수 수출기업 2년 연속 선정	2007/10/26
7	LG전자, 뷰티폰 유럽 14개국 동시 출시	2007/10/25
8	LG전자, 휴대성 편리한 13.3인치 노트북 출시	2007/10/24
9	LG스팀트롬, '기능성 의류'도 특별 관리한다	2007/10/24
10	LG전자, 중국 프리미엄 휴대폰 시장 본격 공략	2007/10/23

대우일렉, 독자회생을 위한 자생력 키운다



대우일렉이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센터(AS)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산 소형가전 유통사업과 AS 대행사업에 나선다.

대우일렉은 전국 100여개 대리점과 AS 센터를 활용해 내년부터 외산가전에 대한 독자 유통·물류 대행 및 AS 대행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11월에는 그 첫 시도로 중국 유명 메이커의 스팀다리미를 자사 유통망을 통해 판매한다.

대우일렉의 이같은 행보는 국내 가전시장에서 삼성전자·LG전자의 과점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사와 경쟁을 피하는 동시에 기존 유통·물류 기반을 적극 활용, 독자회생을 위한 자생력 키우기로 여겨진다. 비디오큰과 매각협상 무산 이후 새로운 매각 대상자를 모색하는 한편, 경영안정화를 위한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대우일렉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우일렉의 유통·AS대행사업 진출은 특히 유통망과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해 국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중국·유럽의 가전업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일렉 고위 관계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소 정제된 사업구조를 확대·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만한 일”이라며 “외산 가전의 경우 유통과 AS에서, 특히 삼성전자·LG전자에 비해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일렉은 중국산 스팀다리미 판매에 들어가

시장 반응을 지켜본뒤 대상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LS전선, 1억 3천만불 규모 자동차전선 수출

LS전선은 10월 29일 세계최대 자동차전장(電裝)회사 중 하나인 델파이(Delphi)사와 총 1억 3천만불 규모의 자동차전선을 3년간 장기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제품은 LS전선의 중국 우시(無錫)법인인 LSCW에서 전량 생산되며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델파이의 아시아-태평양권역에 있는 8개 생산공장에 공급된다.

델파이는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핵심거점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전장업체 중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동차 생산규모가 해마다 급증해 2012년까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가가 될 것이 확실시되어 글로벌 자동차전장업체의 최대 격전지로 부상해 있다.

LS전선의 이번 수주는 델파이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관계유지뿐만 아니라 중국진출이 활발한 글로벌 자동차전장업체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S전선은 델파이 외에도 독일의 레오니(Leoni), 일본의 야자끼(Yazaki) 등 중국 내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대형 자동차전장회사들과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4위권인 중국 내 자동차전선시장 점유율을 2012년까지 1위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델파이는 美 미시건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보쉬(BOSCH)에 이어 세계 2위의 자동차 전장회사로 도요다, BMW, 벤츠, GM, 포드, 크라이슬러, 현대기아자동차 등 세계 30여개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부품 및 시스템, 모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기, 3분기 실적 대폭 확대

삼성전기가 '07년 3분기에 연결기준으로 9,7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연결재무제표로 발표하기 시작한 '03년 이래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삼성전기의 3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8.1%(1,486억원),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19.8%(1,600억원)나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삼성전기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66억원으로 전분기(288억원) 및 전년 동기(286억원) 영업이익의 2배에 육박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전분기 대비 96.5%↑, 전년 동기 대비 97.9%↑)

순이익도 전분기 대비 60.8%(141억원), 전년 동기보다는 91.3%(178억원) 증가하는 등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 모든 경영지표가 대폭 확대되었다.

삼성전기는 이러한 호실적이 주력 제품인 기판 부문의 물량이 증가했고 초고용량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의 증설 효과가 가시화됐으며, 카메라모듈, LED, 파워 등 세부문의 사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된 효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삼성전기는 기판, 칩부품, OS, RF 등 4개 사업 세부분야 흑자를 달성해 향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기의 본사기준 매출은 전분기(6,323억원) 대비 21.5% 증가한 7,684억원, 영업이익은 전분기(66억원) 대비 무려 531.8%가 증가한 417억원을 기록했다.

우영, LED BLU 양산체재 돌입

종합 전자·디스플레이 부품업체 우영은 노트북·모니터용 발광다이오드(LED) 백라이트 유닛(BLU) 제품을 양산하기 위한 설비 구축을 마쳤다고 10월 24일 발표했다.

우영은 33.8cm(13.3인치), 35.8cm(14.1인치)용 제품을 시작으로 향후 더 큰 크기의 LED BLU를 추가해, 내년 월 25만대 규모로 생산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우영은 현재 국내외 주요업체에 33.8cm, 35.8cm용 제품들을 공급하기 위한 계약에 나섰다.

우영은 LED BLU의 핵심인 초박형 도광판 기술을 자체 개발,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부품 적용 승인과정을 완료함으로써 다음 달부터 LED BLU 제품을 월 10만대 가량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영의 유수엽 전무는 "주요 거래처인 국내 대기업들이 내년부터 노트북 LCD 패널에 LED 적용을 늘려갈 예정"이라며 "우영은 LED 조명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관련 사업의 연계로 원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만큼, 향후 LED BLU 사업전망이 밝다"고 전했다.

LG엔시스는 10월~11월에도 80~100명의 인력을 2차로 보낸다.

LG엔시스는 이번 연수를 통해 과잉생산 방지, 불량품과 재고 절감 등에 초점을 맞춘 도요타의 생산 시스템(TPS:Toyota Production System)을 벤치마킹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엔시스 정태수 대표이사는 "도요타와 제너럴일렉트릭, IBM 등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 사례를 꾸준히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조직 혁신이 뛰어난 도요타자동차 연수가 임직원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엠택비전, 시스템C 공급 기록 경신



엠택비전은 지난 9월 국내 팹리스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공급량이 월 1000만개를 돌파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엠택비전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MMP)이 채택된 뮤직폰 모델이 휴대폰 업체에서 연이어 출시되고, 국내 대형 거래처와 신규 해외 거래처의 고화소 카메라폰에 카메라 시그널 프로세서(CSP) 공급이 늘고 있는 데다, 저가폰 확대 추세에 맞춰 카메라 컨트롤 프로세서(CCP)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엠택비전은 지난 2003년 9월 국내 최초로 시스템C 월 100만개 공급을 개시한 이래 4년 만에 월 공급수량을 10배 늘린 1000만개를 달성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05년12월 누적수량 1억개, 지난 6월 누적수량 2억개 공급을 달성했었다.

엠택비전 영업본부 홍지명 상무는 "이번 반도체C 월 1000만개 공급 돌파는 엠택비전 뿐 아니라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9월 매출은 2005년 12월 이래 월 최고 매출이 될 것이며 3분기를 기점으로 국내외 대형 고객사들의 대량 주문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월매출 기록 경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P4라인 가동 공급물량 확대 기대



삼성SDI가 50인치 PDP 전용 P4라인의 가동을 시작하면서 그간 불황에 빠졌던 PDP 재료업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PDP용 전극재료와 파우더(격벽재·상판·하판용)를 중심으로 한 PDP재료 업계는 이번 삼성SDI P4라인 가동을 지난 상반기의 고전

을 털어내고 턴어라운드와 재도약을 꾀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고 있다.

P4라인은 스크린마스크 없이 격벽을 만드는 LDP(Laser Direct Patterning) 공법과 함께 오프세트프린팅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공급하는 SSCP(대표 오정현)의 두각이 기대된다. SSCP는 삼성SDI와 오프세트프린팅 공법을 적용한 PDP 전극재료를 공동 개발하고 올 상반기에 경남 김해(진영공단)에 생산설비를 구축, 양산을 준비해왔다. 이 제품은 기존 방식보다 재료비용을 30%이상 절감해 PDP TV의 원가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속에 이달부터 SDI 공급이 본격화됐다.

삼성SDI의 기존 라인인 듀폰 등 해외업체의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이번 P4 라인인 국내 업체가 신공법을 계기로 1위 공급자에 오르게 됐다. 지난 상반기 866억원의 매출을 실현한 SSCP는 하반기에 이번 PDP전극재료 공급에 힘입어 약 30%의 반기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에 부진했던 PDP 파우더 업계의 기대감도 커졌다. 그간 삼성SDI에 가장 많은 파우더를 공급했던 대주전자재료(대표 임무현)는 물론이고 기존 라인 물량의 약 30%를 차지한 휘닉스피디이(대표 전기상)도 P4라인을 포함한 전체 라인 공급물량을 두배 정도인 50~60%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물량 확대를 타진중이다.

LG마이크론, 태양전지 사업 추진



LG마이크론은 10월 22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고효율 박막 태양전지 기술 이전 조인식

을 갖고 앞으로 차세대 CIGS(CuInGaSe2:구리·인듐·갈륨·셀레늄) 박막 태양전지 실용화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LG마이크론이 이번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은 유리기판이나 플라스틱 기판위에 CIGS 화합물을 1~2μm 두께로 얇게 증착시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하는 기술이다.

CIGS 박막 태양전지기술은 기존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한 결정질 태양전지 두께의 100분의 1에 불과해 태양전지 제조에 들어가는 소재의 양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기존 산업 분야에서 이용되는 대량 생산용 박막 제조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소형 유리에 적용, 에너지 변화 효율이 17%에 이르는 박막 태양전지 기술을 확보한 바 있다.

LG마이크론과 에너지기술연구원은 대면적 모듈 실용화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차세대 CIGS 박막 태양전지 실용화 기술 확보를 통해 선진 기업들과 경쟁해 나갈 예정이다.

TI, '똑똑한' 휴대폰배터리 진량 측정 IC 출시



종합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모바일기기의 배터리 진량을 정확히 파악해주는 연료게이지 집적회로(IC)를 출시했다고 지난 10월 9일 발표했다.

TI의 새로운 IC(제품명 'bq27500')는 99% 수준으로 배터리 수명을 예측함으로써 동작 시간을 연장하고, 모바일기기의 데이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의 배터리 진량 표시는 3~5 단계의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단점이다. 또 배터리 진량이 통화 여부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오류가 생기거나, 일정 수준 이하에서 급격히 소모되고 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화중이거나 대기 중일 때 또는 주변온도 등 환경에 따라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전압만으로 배터리 진량을 표시하기 때문.

TI가 새로 내놓은 IC는 어떤 상황에서나 배터리의 잔여 용량을 예측하기 위해, 제품의 단일 셀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배터리 전압과 셀 임피던스, 즉 저항과 전류 통합을 서로 연관시킴으로써 정밀한 충전 상태를 분석한다. 이로 인해 남아있는 충전 상태가 예측된 방전곡선에 따라 오류 없이 움직이도록 해준다.

TI는 또 모바일기기용으로 충전 관련 보호기능을 강화한 배터리 충전기 'bq243xx' 제품군도 함께 내놨다. 새 제품은 충전하는 동안 나타나는 전력 스파이크 또는 결함·오류가 있는 월 어댑터에서 나타나는 입력 과전압, 과전류 및 배터리 과전압 상황 등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아이디에스, 내년 흑자전환 턴어라운드-교보

굿모닝신한증권은 아이디에스(078780)가 내년부터는 실적 부진을 털고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턴어라운드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력 사업부였던 모바일 디스플레이 기판 회로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올해 전년 대비 2.5% 줄어든 1687억원의 매출과 27억원 영업적자 등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두자리수의 외형성장과 영업흑자 전환 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실적 호전 배경으로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회로기판 사업 생산기지 중국 이전으로 원가율 개선 ▲신규사업 MLAP 부문의 성장 모멘텀 ▲자회사 IGT로부터의 지분법이익 등이 제시됐다.

현 연구원은 "이전 설비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한국 대비 생산량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삼성 전자 뿐만 아니라 중국업체에도 납품함에 따라 매출과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형 LCD 업체에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MLAP 기술과, 지분 84%를 보유하고 있는 IGT의 유리관 국산화 기술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기여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오토닉스, 제조업 종합 전시회서 부스 디자인 부문 1위로



오토닉스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조업 종합 전시회(Manufacturing Technology World Series 2007)에 참가해 전세계 500여 개 참가 업체가 가운데 부스 디자인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오토닉스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연간 70여회 이상의 전시회 참여를 통해 고객 지향적인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온, 그 축적된 노하우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